

## / 지역 단신 /

## 영암서 '기(氣) 연구회' 창립총회

‘기(氣) 연구회’ 창립총회가 최근 영암문화원 공연장에서 서북남 영암부군수, 신학현 군의회 의장, 김영근 경찰서장, 최수일 미래산업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영암지역 각급기관단체장과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양동원(70·덕진면)씨가 회장에 선출됐으며 부회장은 박기만(삼호읍)·최복(군서면)·이하남(신복면)씨가, 감사에 문도균(미암)·박준식(시종)씨가 각각 선출됐다. 기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발기 모임을 갖고 그 동안 칭장을 준비하며 ‘영암기공(氣功)’을 보급해 왔다. /영암=김한별기자 hnkim@

## ‘친환경 농업 나주 쌀 축제’ 성료

‘친환경 농업 나주 쌀 축제’가 박준영 도지사와 농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동강 간척지 들녘에서 열렸다.

이날 축제는 올해 친환경 농업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회와 친환경 농업인의 대동단결 한마당 행사 순서로 진행됐다.

또 나주 쌀과 타지역 브랜드 쌀과의 밥맛 비교 품평회와 나주지역 브랜드 쌀 전시, 쌀을 이용한 가공음식, 친환경 농자재 전시 행사들이 다채롭게 열렸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 광양제철소-외주사-주민 화합 다졌다

‘연리지 축제’ 성황리 마쳐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외주 파트너사와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연리지 축제’를 14일 제철소내 백운그린랜드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어린이 문예미당을 비롯해 노·사·민 화합을 다짐하는 학부모당, 장기자랑 경연 및 초청가수 공연, 불꽃놀이가 어우러진 축제미당 등 3부로 나뉘어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진행됐다.

특히 광양제철소 허남석 소장을 비롯해 외주 파트너사 노사 대표, 광양시민 등 31명이 함께 노·사·민의 화합을 다짐하는 공동 선언문을 낭독했다.

/광양=김충호기자 chkim@

## 보성에 국내 최대 생태습지원

## 주암호 상류 복내면 일대 8만여평에 조성

## 연 재배단지·야생화원 등 갖춰 관광자원화

주암호 상류인 복내면 일대 보성 북부 지역에 환경을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습지원이 조성된다.

총 사업비 187억원이 투입되는 주암호 생태습지원은 갈수기 주암호 수질오염의 주인공인 복내면 일대 8만2천평 유유지에 수질정화 능력을 갖춘 습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성군은 지난해 타당성 조사에 착수, 이 일대 유유지를 3개 구역으로 나눠, 사계절 수질정화 능력이 탁월한 수생식물습지를 만들고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연재배단지도 조성한다는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또 7천여㏊의 친환경 벼 재배지역을 만들고 야생화원과 모래정원 등 다양한

수질정화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밖에 생태관찰로와 조망시설, 주차장 등을 완비,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관광단지로 조성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당초 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으나 보성군이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생태습지 조성이 이뤄지게 됐다.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주암호 수질개선은 물론 보성 북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정종해 보성군수는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을 민선 4기 군정역점사업으로 설정하고 미국과 일본 지역 생태습지 조성을 확정했다.

시찰기 위해 조사팀을 이끌고 지난 10일 출국, 오는 19일 귀국할 예정이다.

## ■ 생태습지원 조성 계획



시찰기 위해 조사팀을 이끌고 지난 10일 출국, 오는 19일 귀국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해외시찰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성=안국일기자 giahn@



담양군 봉산면 삼지마을 앞 밭에서 온 가족이 마늘 파종에 나섰다. 삼지마을 육쪽마늘은 가을에 파종해 내년 여름 수확한다.

## “화순 쌍산의소 국가 사적지 지정을”

유족회, “구한말 항일의병 거점”… 청원서 제출

구한말 항일의병운동의 거점이었던 화순 쌍산의소(雙山義소·전남문화재 제153호)를 국가 사적지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쌍산의소 유족회는 지난 15일 화순에서 유족회를 열고 연내 유족회를 사단법인화한 뒤 문화재청에 국가 사적지 지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광주·전남과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여명의 유족들은 법인 설립과 사적지 청원에 동의한 뒤 유족회 차원의 자료 수집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유족회 관계자는 “쌍산의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항일의병 본거지”라며 “선열들의 흐름을 이어갈

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쌍산의소가 시급히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산의소는 구한말 화순과 보성의 경계지점인 계당산(속진·상지재)에 설치된 의병본부로, 당시 300여명의 의병들이 모여 이곳에서 화약과 총기 등을 손수 제작하는 등 호남 의병의 거점으로 이용됐다.

쌍산의소 봉기는 1907년 전국에 무장해제령이 내려지자 이에 반대한 유림들이 ‘조선 자주독립’을 외치며 의병을 일으켜 능주와 화순 등 북지역의 일본군 관사를 습격한 사건으로 향후 호남항일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백혈병 투병 손정현 양을 살립시다”



장성 황룡중 학우 돋기 나서  
학교·사회단체 등 참여 호소

시골 학교 종학교 학생들이 백혈병에 걸린 금우 살리기에 나섰다.

장성 황룡중 1학년 1반 학생 24명은 화수전년대병원에 급성 백혈병으로 입원한 같은 학년 손정현(14세·사진)양이 병원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현양 돋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 학생들의 성금 모금 소식에 전교생이 모금에 동참하는가 하면 장성군과 교육청에서 딱한 사연을 듣고 장성군과 학교·사회단체에 돋기 운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는

등 손양 돋기 운동이 장성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손양은 오는 11월께 동생인 은석(7·초등학교 1학년)군의 골수를 이식받을 계획이나 미납된 병원비와 이식수술비 등 2천만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양의 담임인 차정식 교사는 “정현이가 성적도 우수해 장학생으로 선발될 정도의 모범학생인데, 백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문의 (061)390-7311.

/장성=고재빈기자 jbgo@

## 육쪽마늘 피종

담양군 봉산면 삼지마을 앞 밭에서 온 가족이 마늘 파종에 나섰다. 삼지마을 육쪽마늘은 가을에 파종해 내년 여름 수확한다.

## 우수농수산물 판매망 구축

## 고흥군, 판촉 활동 전개

고흥군이 지역 농수특산물의 판매망 구축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3개월간 전국 대도시권 일원에서 ‘정성고흥 친환경 우수 농수특산물 방문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다.

관계공무원 2명과 농·수·축협 직원 3명, 농가대표 1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이들 판매단은 음식점과 건설공사현장, 아파트단지 등 대량 소비업체를 직접 방문해 고흥군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

수특산물을 판매하고 판촉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고흥군은 2002년부터 전국 텔레시장과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직거래 장터를 연중 개최하고 있으며, 아파트부녀회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지역 농수특산물 판로개척에 힘써왔다.

고흥군 관계자는 “주석을 맞아 관내에 농수특산물 임시 직판장 4개소를 개설하여 고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앞으로 고향사랑 캠페인을 통한 판로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 원전 지원사업비 배분 대립

## 영광군 “원전소재·더 받는건 당연”

## 고창군 “지역여건 종전대로 유지를”

영광원전 지원사업비 배분을 둘러싸고 영광군과 전북 고창군이 대립하고 있다.

원전가동시 발생하는 온배수에 의한 어업피해와 인근 지역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비는 올해의 경우 104억 7천여

만원으로 양 지역이 더 많은 지원사업비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두 자치단체 간 지원사업비의 배분율은 면적 40%, 인구 30%, 원전 소재지 20%, 지역여건 10%를 반영해 결정도록 명시돼 있는데, 지역 여건은 계획화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고창군은 종전과 같이 지역 여건(10%)을 5:5로 균등하게 유지해야 한

다고 주장했지만 영광군은 8:2 비율을 제안했다.

결국 지난 6월 열린 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영광군의 제안대로 지원사업비 배분율을 영광 88.21%(82억 6천 800만원), 고창군 11.79%(11억 500만원)로 결정했다.

고창군은 “총 13명의 심의위원들 중 10명이 영광군 인사로 고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영광군은 “원전이 소재해 직·간접 피해를 받는 영광군이 더 많은 지원사업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고창=김준원기자 jwkim@

## 대인동삼일부동산

☎ 012-311-040, 010-111-01-02-2522  
(부동산 전문점, 대인동 세광상사)

## 유성공인중개사

☎ 032-4545, 364-4545  
(부동산 전문점, 대인동 세광상사)

## 인애공인중개사

☏ 011-642-0391

## 횟집임대

• 고급횟집 하실분 험영  
• 횟집으로 성공하실분  
• 1층 2층 130평 터자 42석

•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

• 임대내용은 횟집 보고 상담

## 투자상담 (소액 투자 환영)

• 재개발 면적

- 약 12만8천평

• 재개발세대수 - 약 6천2백세대

• 시공사 GS·삼성·대림  
현대산업 개발  
금호·벽산·대주  
• 투자상담

## 동부부동산컨설팅(주)

투자상담 ☎ 010-7523-4568, 010-4628-5454  
(금호동 미래우체국 옆)

## - 일반물건

• 대로 받은 아파트 간접매매

• 고급 횟집 하실분 험영

• 횟집으로 성공하실분

• 1층 2층 130평 터자 42석

•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

• 임대내용은 횟집 보고 상담

## 횟집건물매매

• 고급횟집 하실분 험영

• 대로 받은 아파트 간접매매

• 1층 2층 130평 터자 42석

•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

• 임대내용은 횟집 보고 상담

## 횟집건물매매

• 대로 받은 아파트 간접매매

• 1층 2층 130평 터자 42석

•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

• 임대내용은 횟집 보고 상담

## 횟집건물매매

• 대로 받은 아파트 간접매매

• 1층 2층 130평 터자 42석